

창작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다

문화예술인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최현정 |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무국장(hello@livingnart.or.kr)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만든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문화생산과 소비라는 낯은 틀을 벗어나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일상예술창작센터의 시작은 2002년 6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사무국이란 조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해 오다 2003년 5월 일상예술창작센터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프리마켓의 원조로 평가받는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시민 누구나 일상의 삶이 창작이고, 창작이 곧 일상의 삶인 세상'을 지향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의 대표 사업이 됐다. 프리마켓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닌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만을 고집하고 있다.

2010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일상예술창작센터는 1인 창작자들의 활동기반을 만들고,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의 사업 영역은 대안시장, 지역재생, 작품 유통 및 창작자 발굴·지원, 박람회, 문화·디자인

기획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안시장은 시민과 창작자가 주체가 되어 사회와 지역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이자 축제로,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연남동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이 있다. 지역재생 사업으로는 생활창작공간 새끼, 문화예술인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연남동 공방링크 프로젝트 연남자리가 있다. 올해 7월부터 생활창작공간 새끼가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서 연남동생활문화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 중 하나인 '공원과 공방과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공공연한 연남동'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작품 유통 및 창작자 발굴·지원 사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그림과 살림, 창작자들의 작품 판매 공간인 생활창작가게 KEY가 있다. 창작자들의 작품을 제값에 팔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2011년부터 시작한 생활창작가게 KEY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 1회 프리마켓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제값에,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유통채널을 고민하다 첫 번째 매장인 홍대점을 열게 되었다. 2호점인 연남점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취급한다. 현재 이들 2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는 온라인 마켓(www.welcomekey.com).

co.kr)을 오픈해 온라인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사업으로는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영역의 단체들과 1인 창작자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핸드메이드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SIHF)가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 5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세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40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였고, 행사 기간 동안 3만 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핸드메이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내년 행사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DDP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영역과 비영리 영역의 의뢰를 중심으로 문화·디자인 기획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수익 모델인 생활창작가게 KEY와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역량을 집중해 이들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료만 1억 원대, 소셜하우징에 주목하다

소셜하우징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소행주는 2011년 마포구 성산동에 1호를 지은 데 이어 현재 10호점을 준비 중이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2016년 6월 성산동 주택가에 문화예술인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을 완공했다. 연대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소셜하우징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동안의 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총 1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동안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종료 후

〈그림 1〉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외관



센터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비롯한 홀로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점이었다. 임대료로 나가는 비용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임대료가 언제 오를지 모르는 불안감도 더 이상 견고 싶지 않았다.

처음 일상예술창작센터는 프리마켓이 열리는 홍대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후 홍대 일대가 상업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센터는 2008년 임대료가 더 싼 곳을 찾아 마포구를 대표하는 오래된 주택가인 연남동으로 이사를 선택했다. 센터는 이곳에서 생활창작공간 새끼와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을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예술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최근 경의선 숲길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연남동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 지역으로 변모했다.

1인 창작자는 물론 문화예술 기획자가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상승하는 주거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센터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자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사회투자자는 사회투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으로,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은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 예정인 서울 소재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포함,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센터는 공모에서 선정되어 5년 내 상환조건으로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을 추진할 수 있었다.

공동 공간 갖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준공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은 창작자와 기획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건물이다.

센터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창작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왔고, 센터 구성원 역시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왔기 때문에 돈독한 관계를 자랑한다. 이에 별도의 입주민 선정 과정 없이 그동안 주거문제를 고민해왔던 창작자와 기획자가 모여 자연스럽게 소셜하우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연남동 사무실과는 도보로 10~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기존 센터와 가까운 성산동에 자리 잡게 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 서울에서 그나마 부지 가격이 싼 곳이

였기 때문이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현재 시세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소셜하우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은 주택 밀집지역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단독 건물 형태로 지어졌다. 3인 가족을 위한 주거공간 3개와 1인 생활자를 위한 주거공간 1개를 포함한 총 6가구의 주거공간과 20여 명이 일하는 센터 사무실 공간 2개를 비롯한 공동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민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공간 공유를 통한

〈그림 2〉 지하 1층에 위치한 공동 주방(위)과 공방(아래)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입주민 연대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하 1층은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구를 비치한 공방과 넓은 공동 주방, 다이닝 공간 등을 갖췄다. 창작자들이 입주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 중문을 개방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며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입주민의 계절용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상 1층에는 주차공간과 센터 사무실 1개가 위치해 있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 1개와 함께 입주민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센터 사무실과 6가구 모두가 입주를 마쳤고, 마무리 정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가을경에는 사람들에게 집 개방하는 집들이 행사도 계획 중이다.

건축은 현실의 문제, 소통이 중요해

‘집을 짓는 동안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2015년 9월 공사를 시작으로 준공을 마친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이 10년과 같았다.

소셜하우징 계획 초기에는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회의를 위해 모이면 ‘방은 몇 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지?’처럼 내부 공간에 대한 고민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러한 고민은 전체 골조를 완성한 후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경험을 얻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커다란 숲을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집을 건축하는 경험이 모두 처음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이어졌다. 모두에게 건축은 용어에서부터 낯설고 생소한 분야였다.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꿈이 아닌 현실의 문제였다. 한

〈그림 3〉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내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무실



번 작업을 잘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다시 들기 때문에 빠듯한 예산을 고려해 건축을 계획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여름과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그림 4〉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 로고



어렵다 보니 이를 피해 공사기간을 선정해야 하는 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경 쓸 일이 끊임없었다.

우리나라 주택의 층고는 보통 2m 40cm다. 층고를 높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고도제한이라는 문제와 직면했다. 원하는 만큼 층고를 높이면 지상 5층이 아닌 4층으로, 한 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었다. 한 층 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손해였다. 이에 지상 5층을 고수하면서 층고를 조금씩 높이는 차선책을 찾아내야 했다.

인접대지 경계선 문제와 지하실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의 항의도 많이 받았다. 작업자들과의 소통 역시 쉽지 않았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건물 골조가 완성되었을 때 느낀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림 5〉 아이방(위)와 주방, 거실(아래)



세탁기를 놓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한정된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하려는 의도였다. 베란다 공간은 일부러 새시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했다. 겨울의 추위에 취약하겠지만 베란다에 나가 햇빛을 쬌며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옥상공간도 어떻게 사용할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5년 내 용자금 상환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을 통해 월세로 소모되는 비용을 줄였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센터는 창작자와 문화예술 기획자의 주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소셜하우징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이 이제 막 시작한 지금은 조급함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우선 아직은 낯선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려 한다. 이어 동네 산책을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공간을 넓히는 작업부터 시작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에도 힘을 계획이다. ●

소셜하우징, 자신이 살 집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소중한 과정

소셜하우징을 시도하며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이미 지어진 집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주체적으로 살 집을 구상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입주민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입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구성해 나갔다. 가스레인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폐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나누고 주방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레인지를 설치했다.

공동세탁실을 만들고, 대형 세탁기를 구비했다. 집집마다

〈편집자주〉

도시문제 '공유'로 풀다 시리즈의 연재를 마칩니다. 2015년 9월 '공유, 도시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를 시작으로 민달팽이유니온, 세어하우스 우주(WOOZOO), 스페이스 노아, 위플러스, 스페이스클라우드, 아이디어팩토리, 쏘카, 모두의주차장, 코자자, 버스킹플레이, 달랠라피아노 프로젝트, 소셜하우징 따뜻한 남쪽까지 모두 12개의 대표적 도시공유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리즈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게재된 원고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